

# 중기부, 중소기업 'AI 상용화' 속도 낸다

### 870억 투입... 컨소시엄 방식 2년간 36개 과제 추진 AI 제품 개발에 초점...국도·교통 등 10개 부처 참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AI 전환(AI)'에 속도를 낸다. 중기부는 23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발표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핵심 실행 과제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1만2000개 보급, 제조업 AI 도입률 10% 확대, 산업재해 20% 감소, 제조 AI 전문기업 500개 육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그 가운데 '현장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 규모는 총 870억원이다. 올해 645억원, 내년 225억원을 투입해 2년간 36개 과제를 지원한다. 과제당 정부가 최대

70%를 부담하고, 민간이 30%를 매칭한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제조 AI 기술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이다. 사업은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제조 현장 문제해결형'은 공정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 위험, 품질 불량, 생산 지연, 인력 부족 문제를 AI로 직접 해결하는 과제다. '지역산업 육성형'은 지역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성공 모델을 만든 뒤 협력사와 동종 업계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환을 노

린 구조다. 지원 분야는 네 가지로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예방하는 '산업안전',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공정혁신',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경영혁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소비자 체감형' 등이다. 총 16개 세부 테마로 구성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AI 제품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며 "성공 사례를 빠르게 확산해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중앙회도 뿌리업종과 협동조합 분야 과제를 발굴해 후속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뿐 아니라 농·축·어업, 바이오·헬스·환경, 보안·방산, 국도·교통 등 10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다. 세부 내용은 3월 통합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기업과 기술기업 간 선순환적 스마트제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중기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중기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AI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현재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 AI 도입을 통해 산업재해율 20% 감소를 목표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 AI 전문기업 500개 사 육성을 통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스마트제조 기술력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unzy@gwangnam.co.kr

### 스타벅스 "한국 열죽아 모여라" 전 세계 최초 '에어로카노' 출시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세계 최초로 새로운 콘셉트 음료를 선보인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8일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새로운 방식의 아메리카노 커피인 '에어로카노'를 선보이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콜드 브루'에 이은 새로운 아이스 커피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직 한국에서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에어로카노'를 통해 스타벅스가 업계 선도하는 정통 커피하우스로서 커피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에어로카노'는 아메리카노에 에어레이팅(공기 주입)을 더해 벨벳 같은 크리미한 폼과 부드러운 목 넘김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아이스 전용커피다.

'에어로카노'의 미세한 폼이 에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직함과 씹쓸함을 부드럽고 가벼운 폼으로 구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콜드 브루' 등 기본 아이스 커피를 즐겨 찾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폭포같이 흘러 내리는 캐스케이딩의 비주얼까지 더해져 눈과 입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스 커피를 즐겨 찾는 열죽아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의 커피 문화와 가장 역동적이며 열정적인 한국 커피 시장을 존중해 전 세계 최초로 출시를 결정했다.

유통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인기 팝업으로 고객 발길 끌어...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강릉 소문난 무침회 팝업 매장에서 직원이 무침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 AI 스타트업 특허심사, 한 달만에 끝낸다

###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례권 확보를 위한 심사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설된 스타트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 신청대상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 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및 첨단바이오 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 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 심사가 제공된다.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 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영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AI,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창업 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지역 백화점, 보냉가방 회수로 ESG 실천

### 광주신세계·롯데, 캠페인 추진... 자원 순환 문화 정착

광주지역 백화점이 잇따라 친환경 실천 행보를 펼치며 자원 순환의 가치 전파에 나서 눈길을 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3월 15일까지 설 명절에 받은 선물 보냉 가방을 반납하면 1개당 오프포인트 3000점을 적립해 주는 '보냉 가방 회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냉 가방은 명절 선물세트의 신선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명절 기간 수산물과 한우 등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 포장에 쓰이지만, 사용 후에는 대부분 버려진다.

회수 대상 품목은 롯데백화점 정육, 곱감, 선어 선물세트 전용 보냉가방으로 반납하면 1개당 오프포인트 3000점을 적립해 준다.

시은행사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보냉 가방 회수 이벤트 쿠폰'을 발급 받아 참여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22년 추석부터 업계 최초로 보냉가방 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고객이 그 해 명절에 사용된 보냉 가방을 반납하면 오프포인트(L.POINT)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고객들로부터 자발적인 자원 순환 문화를 이끌어내는 ESG 프로모션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회수된 보냉 가방은 재활용해 재사용되거나 롯데백화점에서 업사이클



링해 새로운 굵조로 재탄생하여 다양한 행사에 활용된다. 앞서 광주신세계도 지난 9일부터 'Better Choice Better Future'를 테마로 보냉 가방 회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은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진다. 고객이 보냉 가방을 반납하면 5000원 이상 상품 구입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교환바우처를 받는다. 회수된 보냉 가방은 광주지역의 '에이앤즈 협동조합'을 통해 업사이클링 상품으로 제작돼 광주지역에 기부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재활용한 제품을 서구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냉 가방 회수 이벤트는 고객과 백화점이 함께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는 실질적인 ESG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자원 순환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유통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 용수처리종합계통도 (Water Treatment Flow Chart)
- 정밀 여과장치 (Micro-Filter Housing)
- 백필터 시스템 (Bag-Filter System)
- 자외선 살균장치 (UV Sterilizer)
- R/O장치 (Reverse Osmosis System)
- 방청 방식 장치 (Dispenser)
- 급속 침전 장치 (Clarifier)
- 압력식 여과장치 (Pressure Filter)
- 중력식 여과장치 (Siphon Filter)
- 활성탄 여과장치 (Activated Carbon Filter)
- 경수 연화 장치 (Water Softener)
- 혼상식 순수 제조장치 (Mixed Bed Deionizer)
- 복상식 순수 제조장치 (Two Bed Deionizer)
- 수중의 불순물과 처리방법
- 이온 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
- 활성탄소 (Activated Carbon)
- 대기중 입자 크기별 FILTER 선정
- 임도비교표
- 임도비교표
- 마이크로 필터 (Micro Filter)
- Air Filter Media
- Air Filter
- Medium Filter
- Hepa Filter
- Filter Bag
- Pocket Bag Filter
- Air Filter의 시험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